



배꽃 흐드러진 나주 예년 봄 기온을 되찾은 15일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 금천면의 한 배밭에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활짝 핀 배꽃 사이로 한 농민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배 재배 농가들은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와 강풍으로 인해 착과 불량이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전남 5개 시군 ‘동서통합지대’ 포함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경남은 하동·진주·남해·사천 4곳

국토부 이달중 개발 연구 용역...10월까지 사업안 확정

새 정부가 영호남 화합을 위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에 구례, 광양, 순천, 여수, 고흥이 포함됐다.

섬진강 양안의 전남 동부·경남 서부지역에 조성되는 동서통합지대는 새 정부가 전담 기획단을 꾸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동서통합지대에 이들 시·군이 선정된 사실을 알렸다. 경남에서는 하동, 진주, 남해, 사천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 개발기획단에 따르면 이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짜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중 시작해 오는 10월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계획 수립 과정에 해당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먼저 귀담아 듣고, 정부와 지역의 연구 기관 등과 협의해 계획안을 만들어 낸 뒤 예산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고흥과 사천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을 함께 지원해 주는 등 ‘동서통합’이라는 큰 틀을 총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과 남해안선벨트 등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전남도와 경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과 남해안 선벨트, 목포~부산 철도고속화 사업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려대교는 영·호남간 문화 교류와 연계교통망 확충이라는 의미 때문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호남과 영남을 잇는 통합의 상징으로 주목받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

는 이유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목포~부산간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도 호남 소외의 상징으로 거론돼온 경전선 전남 구간의 복선화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남해안 일대를 2020년까지 167개 사업에 24조39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축으로 만드는 사업인 남해안 선벨트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생’의 의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서통합지대와 남해안 선벨트가 완성되면 남해안권 지역총생산이 240조원대에 달하고 제조업 총생산액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현안 사업이 대폭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연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ah@

U대회 남북단일팀 어찌하나

한반도 핵위기 고조에 구성 먹구름 강시장 “UN·민간단체 투트랙 추진”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장기화되면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해온 광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올 초만 하더라도 UN의 지원 속에 상반기 내에 단일팀 구성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강준태 광주시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직접 평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단일팀 구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왔는데,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 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광주시

가 UN(UNOSDP·유엔스포츠개발화사무국)을 통해 추진해온 남북 단일팀 구성 접촉마저 소강 상태에 놓여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등 한반도 평화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강 시장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이 북한 측에 대화를 먼저 제의한 것”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는 것이며,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럴 때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집요

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이미 지원을 약속한 반기문 사무총장 등을 통한 UN차원의 접촉과 민간단체를 통한 대화채널 등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늦어도 2014년 중반 이전에는 단일팀 문제가 확정돼야 이후 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대화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시장의 ‘기회론’은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극한 대립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로 스포츠 외교를 활용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북한이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을 이룬 것은 1991년 3월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5월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도세 감면 집값 기준 9억 → 6억 하향조정

여야정 협의체 합의...면적기준은 사실상 폐지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집값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놔으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

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놔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

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 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급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항공권 예약문의: 1588-2682 홈페이지 www.keair.co.kr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90분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양양국제공항 ⇄ 광주공항 국내선 운항

※ 양양공항 출발 12:20 ○ 광주공항 도착 13:50
※ 광주공항 출발 14:20 ○ 양양공항 도착 15:50



설악산 무등산



양양국제공항(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 광주광역시 농장으로 현지 이벤트!

■ 2013. 4. 20 (토) : 16:30 ~ 17:30, 총창로 일원	
행사명	장소
거리캠페인	총창로 일원 4거리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경품추첨	광주우체국 영업과 앞 왕복 무료항공권, 무료 숙박권, 농특산물 등
박티트리기	강원도·광주광역시 교류협력 기원

■ 2013. 4. 21 (일) : 08:00 - 12:00, 광주상무시민공원
제10회 호남국제마라톤대회 “양양-광주간 국내선 운항” 홍보
강원도 관광홍보부 운영